

# 아트:광주:21

## 감상에서 소유로 '행복한 미술시장'

28~3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120개 부스 운영  
15개국 70개 전문갤러리 참여...컬렉터 발굴 무게  
메타버스 전시...기념사진 프린트 행사·문화강좌 등



데이비드 호크니 작 'Test Image'

지난 13~17일 열린 키아프의 매출액은 650억원, 방문객은 약 8만8000명이었다. 5월 열린 부산 아트페어 매출액 역시 35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미술 시장의 호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미술 시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MZ세대들까지 미술시장에 관심을 보이면서 컬렉터층도 다양해지고 있고, '아트테크'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미술문화생태계를 지원하는 행복한 미술시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아트광주 21'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지난해 코로나 19로 온라인 행사만 진행됐던 터라 2년만에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미술장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진흥회가 주관하는 올해 행사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던 작가들의 개인부스를 폐지하고 갤러리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지역 작가들의 참여는 아트광주 21사무국이 다양한 주제로 자체 기획전 부스를 운영하는 식으로 보완했다.

행사는 본전시 95개 부스로 운영된다. 15개국 70개 국내외(국내 56개, 해외 14개) 전문갤러리가 참여했으며 사무국이 운영하는 기획전 부스는 25개다. 이와 함께 예술의 거리 프로젝트 등 지역 문화예술행사와 연계한 부스도 마련됐다.

행사 참여작가는 모두 535명이며 국내갤러리 참여작가 341명, 해외갤러리 참여작가 60명, 자체 기획전 참여작가 134명 등이다. 전시에서는 김명식·김창열·김환기·박서보·방해자·백남준·신현준·이강



2019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트광주 21' 행사 모습.

소·이건용 등 한국 미술계 거장들의 작품과 함께 앤디 워홀, 데이비드 호크니, 무라카미 다카시, 필립 쿨버트 등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또 강연·공연·오수준·정승규·최영훈·송필용·이이남·이정록·한희원 등 지역 대표작가들과 강동호·고차분·이인성·하루K 등 신진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한다.

자체부스 기획전은 지역 원로작가를 소개하는 '명품작가전', 인기작가 그룹의 '블루칩 작가전', 비전 있는 청년작가 양성을 위한 '라이징 스타전' 1가구 1작품 컬렉션을 지향하는 '마음의 선물전'과 '행복한 그림전', 동시대를 앞서 나가는 작가의 대형 작품을 소개하는 '프로포즈존' 등이다. 또 관람객들이 좀 더 편하게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균일가존(50만원~200만원)도 운영한다.

국내아트페어 최초로 메타버스 전시부스도 준비했다.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색다른 환경에서 감상하는 뉴노멀 시대의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으로 미래형 아트마켓 플랫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강좌로는 '아트페어의 기능과 역할'(29일 오후 2시 운영), '흥미로운 미술품 수집'(30일 오후 2시 김병현 소촌아트갤러리 총감독), '미술품 수집-어느 작품에 시선이 가시나요?'(30일 오후 3시 조관용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남도가 날은 예술가들'(31일 오후 2시 흥윤리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사) 등이 예정돼 있다.

그밖에 기념 사진 프린트 행사, 행운권 추첨을 통한 기념품 증정 등 이벤트도 진행하며 온라인에서도 전시를 만날 수 있다.

한편 '아트광주21은 지역 갤러리, 작가와의 상생을 위해 다채로운 사전행사를 진행했다. 아트마켓 '프리뷰'(6회), 아트광주21 참여갤러리와 함께 한 '프리페어'(5회) 등을 진행했으며 온라인 전시(90회), 미술문화강좌(10회) 등도 열었다. 윤익 아트광주 21 예술감독은 "이번 아트페어는 지속 가능한 미술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컬렉터 발굴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고근호·김영설·김해성 3인전  
100일간 매일 작업 결과물 전시  
28일~11월 3일, 무등갤러리

'100일 동안, 매일 매일 한 점.' 일기처럼 써 내려간 '작품'을 만나는 전시가 열린다. 도예가 토인(土人) 김영설, 서양화가 김해성, 조각가 고근호. 오랜 인연을 이어온 3명의 작가가 '삼인삼색-100일간의 드로잉전'을 진행한다. 28일부터 11월3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 '100일 동안 작업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한 장소에서 선보이자'는 처음 기획을 높고는 고민도 많았다. 특히 회화와 달리 작업 과정이 복잡한 도예가와 조각가에게는 쉽사리 마음먹기 어려운 미션이기도 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니 몸도 아이디어도 풀리기 시작했고, 다루지 않았던 재료를 만지거나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불쑥 떠오를 때면 즐거운 마음이었다. 100일은 '힘들면서도 선물같은 시간'인 셈이었다. '매일 손에서 놓지 않고 작업하는 것은 작가의 생명력과 창작의 영감을 준비 상태로 놓는 중요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고 작가는 작업실에 있는 재료들과 유쾌한 장난을 주고받으며 작품을 푹푹딱딱 만들어냈다. 길게 자른 가느다란 나무로 만들어낸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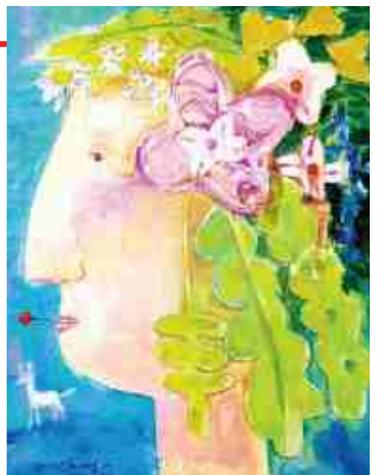
고근호 작 '빙어리새'

과장', 철판을 잘라 재미있게 구성한 '가을여행' 등이 대표적이다. 흙 빚기, 유약 바르기, 가마에 굽기 등 지난한 작업을 진행해야하는 김영설 작가에는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다. 매일매일 작업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 '수작'에 가담한 그는 이 때가 기존 작업에 대해 변화를 모색하던 시점이라 "결과물이 꼭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 하려 고민하고 시도했던 경험 이후 작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리라 믿는다"고 말한다. 귀여운 토우가 올라 앉은 '토우주자', '친구란 두



김영설 작 '토우주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등의 작품이 전시에 나온다. 김해성 작가는 좀 수월한 편이었다. 평면 작업인데다, 2년 전부터 이미 하루 한 점 드로잉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그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꿈꾸는 이미지의 작품들을 아크릴 등으로 꾸준히 한점씩 그려나갔고, 콜라주 작업 등 다양한 변화도



김해성 작 '선물'

시도했다. 전시에는 '술을 걷는 사람', '꽃선물 주기', '고양이와 새' 등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의 작품들이 나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린알로에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